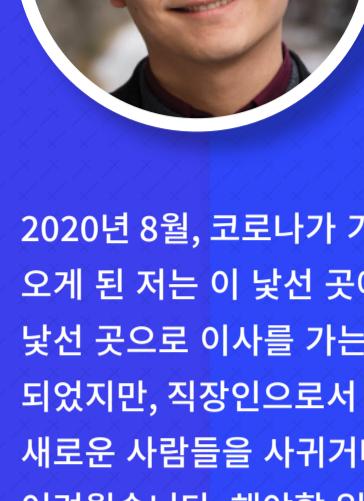


로렌스 한인교회는요 ...



엄세용 - KU 음악대학 타악기 조교수

Sam Uhm - Assistant Professor of Music, K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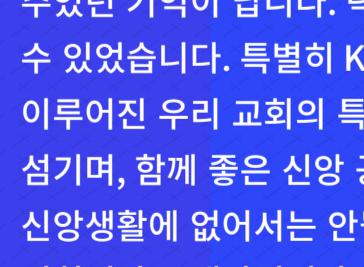
2020년 8월, 코로나가 가장 극심했던 시기에 혼자 로렌스로 이사를 오게 된 저는 이 낯선 곳에서 홀로 적응을 해야 했습니다. 학생으로서 낯선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은 이미 많이 겪어본 일이기에 적응이 되었지만, 직장인으로서 이사를 온 것은 처음이었고, 코로나로 인해 새로운 사람들을 사귀거나, 친구들을 만나는 일은 아주 어려웠습니다.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었음에도 마음 한구석에는 외로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교회에 직접 가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감사하게도, 로렌스 한인 교회를 출석하면서 청년부 멤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신앙의 길을 같이 걷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 제 마음 한편에 멀어져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렌스 한인 교회는 비어있던 저의 마음 한 켠을 채워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양인아 - KU 약학대학 예과 과정

InA Yang - Pre-Pharmacy Undergraduate, KU

로렌스 한인교회는 제가 가장 가까이 주님을 만난 곳입니다. 작은 도시에 오게 되면서 한인교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저에게 가장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장소에서 만난 로렌스 한인 교회 덕분에 매일 응답 받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그리고 주일 가까운 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김혜영 - KU 분자 생물학 박사과정

HyeYoung Kim - Molecular Biology Ph.D Program, KU

처음 박사과정을 시작하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로렌스에서의 생활은 “막막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 오기 전부터 미리 한국에서 로렌스 한인교회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당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던 부장집사님과 청년들이 흔쾌히 뭍을 곳도 제공해주며, 미국 생활에 필요한 여러 유익한 정보들을 나누어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덕분에 로렌스에서의 유학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KU에 재학중인 유학생/유학생가정들로 주로 이루어진 우리 교회의 특성상 청/장년들과 함께 다양한 사역을 섬기며, 함께 좋은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점에서 신앙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또바기 청년부 활동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비슷한 고민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들이 개인적으로는 힘든 로렌스 생활의 또다른 휴식처와 같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곳 로렌스 한인교회에 오게 될 많은 유학생들이 학업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신앙적 훈련의 시간들과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로렌스에서 은혜롭고 소중한 추억들을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